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 소련·일본 군사원호정책의 도입과 변용을 중심으로

김선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논문요약

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인민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의 보급,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의 조달을 위해 1949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설립을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했던 군사원호사업을 참고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모델로 초급단체를 기본조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일본과 달리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항공화학후원회에서 진행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 보급사업을 도입해서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뒤에 모병하려고 계획하였다.

한편 조국보위후원회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된 국방기금·국방헌금·애국기 헌납운동을 모델로 해서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을 모금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헌납운동의 체계와 방식을 모방한 대신, 헌납의 대상을 비행기에서 탱크와 함선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헌납의 대상도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노동'과 '애국미'로 확대해서 헌납운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계급을 다양화함으로써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주제어: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제국군인후원회,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애국기헌납운동, 비행기·탱크·함선건조기금

I. 머리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대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군대를 지속적으로 원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1년 전에 조선인민군을 후방에서 원호하고 주민들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적 사회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가 ‘조국보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이다.¹⁾

조국보위후원회 준비위원회는 1949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인민군과 주민의 연계를 강화해 군대를 후원하는 것과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²⁾ 이후 조국보위후원회는 비행기·탱크·함선 건조자금 헌납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지식 보급과 민간 군사훈련을 담당했고, 6·25전쟁 발발 이후에도 전쟁 전과 유사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선행연구는 북한의 6·25전쟁 준비과정과 수행과정을 분석하면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거론하였다.⁴⁾ 지금까지 조국보위후원회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한편뿐이다. 문미라는 북한이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와 이를 위한 전 사회적 대중동원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 단체가 구축해놓은 동원체제 덕분에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고 분석

1)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 단체 중에는 면·리에 조직된 자위대(自衛隊)도 있었다. 그러나 자위대는 조국보위후원회와 달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무장단체였으며,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서울: 나남, 1996, pp. 779-780.

3)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軍史』 109호, 2018, p. 207.

4) 박명림, 위의 책, pp. 777-785;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 서울: 선인, 2003, p. 59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p. 273-274;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軍史』 57호, 2005;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49-51, 57; 황성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p. 163-165; 김재웅,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 『한국사연구』 175호, 2016, pp. 251-255.

하였다.⁵⁾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국보위후원회는 아직도 해명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조국보위후원회는 북한의 정치세력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단체가 아니라 해방 전에 다른 국가에 조직된 단체를 모델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역사적 기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조직과 하부단체의 조직구성과 간부도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다. 특히 조국보위후원회와 다른 사회단체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역사적 기원과 조직·활동을 자료에 입각해 사실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역사적 기원을 소련과 일본에서 찾아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정치세력이 소련과 일본의 어떤 사회단체를 모델로 해서 조국보위후원회를 설립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중앙조직·하부단체·간부·주요활동을 재구성하고, 조국보위후원회와 다른 사회단체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상의 주제를 통해 북한의 정치세력이 소련과 일본의 군사원호정책을 수용한 점과 자체적으로 변용한 점을 확인하고, 전쟁준비과정에서 조국보위후원회에 어떤 역할을 부여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군노획문서(美軍鹵獲文書)에 들어 있는 조국보위후원회 생산자료와 북한 사회단체의 기관지, 『로동신문』과 『동아일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II. 조국보위후원회의 역사적 기원

1. 소련의 모델 :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북한은 1949년 5월부터 38선의 군사적 충돌이 연대급 전투로 격화되고 전면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전쟁에 대비해 동원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민

5)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pp. 205-243.

간인을 동원하고 군대와 사회의 접점을 형성함으로써 ‘전 사회의 군사화’를 달성하고 광범위한 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조국보위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후원회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운동, 민간인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의 보급을 담당하였다.⁶⁾

그런데 조국보위후원회는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구상해서 만든 대중동원단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국보위후원회와 그 성격·활동이 유사한 단체는 1920년대 이후 소련과 1930년대 이후 조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보위후원회와 유사한 소련의 단체는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蘇聯國防航空化學建設後援會)’이며, 일제시기 조선에 조직된 단체는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의 군사원호단체를 사전에 검토했던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과 활동 내용을 보면 소련과 일본의 모델을 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이하 항공화학후원회)는 1926년 1월 말에 설립된 “대중적 국방단체”였다. 항공화학후원회는 ‘소비에트동맹이 무력을 강화하고 소비에트무력의 후비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비에트정부와 소련공산당을 방조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후원회는 소련정부와 소련공산당을 도와 “대공방위(對空防衛)”를 강화하는 활동도 수행했다.⁷⁾

그런데 항공화학후원회는 2개의 대중적 국방단체가 통합해 만들어진 단체였다. 소련에서는 1920년 11월에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보위하고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의 붉은 군대와 국방력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대중적인 국방단체로 “군사과학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이후에 “국방후원회”로 개편되었다.

6)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pp. 210-211, 215.

7) 혁호, 조소문화협회중앙위원회,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조소친선』 1949년 10월호, 평양: 文化出版社, 1949. 10. 10., p. 34.

또한 1923년에는 “항공동호회(航空同好會)”가 조직되었고, 1924년에는 “화학방위산업동호회”가 조직되었으며, 두 단체는 1925년에 통합해 “항공화학동호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국방후원회 중앙평의회 총회와 항공화학동호회 제1차 전연맹대회는 1927년 1월 말에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양 조직을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가 창설되었다.⁸⁾

단체의 연혁을 보면, 항공화학후원회는 군사과학협회, 항공동호회, 화학방위산업동호회를 기반으로 조직된 대중적 국방단체였다. 이 같은 단체 성격에 따라 항공화학후원회는 창설 이후에 군사교육, 항공사업, 화학사업에 주력하였다. 후원회는 1931년 1월 당시에 1,5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1933년 말에는 회원을 1,700만 명까지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⁹⁾ 또한 후원회는 “부인(婦人)을 국방에 접근시켜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부인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으며, 그 결과 1936년 6월까지 600만 명의 부인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¹⁰⁾ 항공화학후원회는 소련공산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공산주의청년동맹(콤소몰: Komsomol), 직업동맹, 기타 사회단체와 긴밀히 연계해서 자체사업을 진행하였다.¹¹⁾

항공화학후원회의 중앙조직은 “쏘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동맹”이었다. 후원회동맹 산하에는 소련의 모든 공화국에 조직된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가 소속되었다. 후원회동맹 회원의 자격은 후원회의 일정한 조직에 소속되고 회비를 납부하는 ‘14세 이상의 소련공민’이었다. 후원회동맹의 기본조직은 3명 이상으로 조직되는 초급단체였다. 1947년 1월 1일 현재 후원회동맹은 1,550만 명의 회원과 32만 개의 초급단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각 초급단체에는 “방공화학씨클, 라디오·발동기·자동차·트랙돌 연구씨클, 모형기씨클, 사격경기팀”과 각종 군사기술에 대한 “훈련분조”가 조직되었다. 또한 후원회동맹은 “비행구락부, 락하산-활공기구락부, 양견(養犬)구락부, 무전기구락부, 사격경기구락부, 모

8) 혁호, 조소문화협회중앙위원회, “쏘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p. 34.

9) “躍進하는 赤衛軍.” 『동아일보』 1933년 11월 9일.

10) “蘇聯化學戰準備.” 『동아일보』 1936년 6월 30일.

11) 혁호, 조소문화협회중앙위원회, “쏘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p. 37.

형항공기구락부” 등 ‘대중적 훈련조직’을 보유하고 있다.¹²⁾

항공화학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자기의 조직에 망라된 전체 회원들에게 소비에트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교양하며, 각종 교양사업과 훈련사업 등을 광범히 조직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능히 조국방위를 위해 총칼을 지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항공화학후원회는 창설 초기에 주로 조직·선동사업을 진행했다. 즉 후원회는 1927년부터 여러 차례 모스크바와 도쿄·뉴욕 항로를 비행하는 ‘선동비행’을 실시했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 속에서 군사항공화학지식에 대한 선전사업을 진행하고, 항공기재 수집사업을 조직하며, 화학을 농촌경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¹³⁾

항공화학후원회의 조직적 기초와 사업의 기본방향은 1935년 8월 소련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 이 결정 이후에 후원회는 군사지식에 대한 선전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항공화학후원회가 독소전쟁(獨蘇戰爭) 전에 가장 대중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주민들을 대공방위(對空防衛)와 대화학방위(對化學防衛)를 위해 준비시키는 사업과 항공사업이었다. 그 결과 소련에서는 1932년에 비해 1941년에 “비행구락부”의 수가 100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후원회는 많은 비행사와 낙하산병을 양성했고, “비행구락부모형기씨클” 등을 광범히 조직했다. 이를 통해 후원회는 소련 비행사와 항공건설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의 저명한 비행기 설계자 ‘아. 야코블레브(A. Yakovlev)’는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에서 항공사업을 배운 인물이며, 소련의 3중영웅 ‘아. 뵘끄리이스킨’과 ‘이. 꼬쨌두브’도 후원회의 비행구락부에서 학습한 사람들이었다.¹⁴⁾

항공화학후원회의 주요사업은 군사훈련·군사선전·항공사업의 발달·보급, 대화학전(對化學戰) 방호(防護)와 방공(防空), 체육, 승마, 군용견·전서구(傳書鳩)의

12) 혁호,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위의 논문, p. 37.

13) 혁호,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위의 논문, p. 35.

14) 혁호,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위의 논문, p. 35.

양성, 해사(海事)·농업 등 직·간접적으로 국방에 관계되는 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후원회의 핵심사업은 군사교육과 대중에 대한 군사훈련이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수만 명을 회원으로 둔 사격단체와 군사기술단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군사교육을 위해 각지에 군사훈련소를 설치하고 다수의 청년을 입소시켰다. 1936년 6월 현재 후원회에 설치된 클럽은 “군사지식구락부”가 27,800개, “사격구락부”가 16,000개에 달했다.¹⁵⁾

또한 항공화학후원회는 독가스 살포 등 화학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후원회는 소련 전역에 있는 지부에서 “마스크”와 “연습용 독가스탄” 등을 사용해 실지훈련을 실시했으며, 실제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모의화학전을 실시했다. 가령 후원회의 회원들은 공원 등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연습용 최명성 독가스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실지교육을 실시하였다.¹⁶⁾

한편 항공화학후원회는 소련정부가 전시에 “공군의 제2군”으로 설정한 민간항공(Гражданская Авиалиния)의 일부였다. 소련의 민간항공은 ‘전시공군예비군’과 민간항공을 지휘·후원하는 것을 주관하는 항공화학후원회로 구성되었다. 민간항공의 본부장은 적군 공군사령관 트카초프(Tkachov) 일등대장과 군사회의 위원 아이데만(Eideman) 일등대장이 각각 겸임하였다. 아이데만 대장은 바로 항공화학후원회의 회장(會長)이었다.¹⁷⁾

항공화학후원회는 독소전쟁시기에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사업은 소련군을 후원·원조하는 사업, 대공방위(對空防衛)를 강화하는 사업, 대중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빨치산 대원을 양성하는 사업, 유가족 원호와 위문품 수집 등 전선원호사업이었다. 대표적으로 후원회에서 방공규칙을 학습한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폭탄제거, 화재진압, 구급치료를 담당했으며, 후원회의 초급단체마다 분대·소대·중대가 조직되어 수십만 명의 회원들이 군사훈련을

15) 당시 조선의 언론은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국방비행화학협회(國防飛行化學協會)”라는 명칭으로 번역해서 보도하였다. “蘇聯化學戰準備.” 『동아일보』 1936년 6월 30일.

16) “五個年計劃과 軍需工業의 發達(三)-露西亞篇.” 『동아일보』 1934년 2월 21일.

17) “民間航空機 擴張, 大蘇貧弱한 現狀.” 『동아일보』 1936년 6월 16일.

받고 참전하였다. 이 중에서 273명의 회원이 소련영웅칭호를 받았다. 또한 모스크바시후원회는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훈련시켜 빨치산부대에 파견했으며, 후원회의 각급조직은 유가족 원호와 위문품 수집 등 전 인민적 전선원호사업을 전개하였다.¹⁸⁾

2. 일본의 모델 : 조선군사후원연맹

조국보위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는 일제시기에 조선에도 있었다. 이 단체는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이다. 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7월 24일에 결성되었다. 연맹은 결성식 선서에서 “각하(刻下) 비상사국에 직면하여 조선군사후원연맹은 더욱이 애국의 열의를 양양하여 결속제휴(結束提携)하며 힘을 총후(銃後)의 임(任)에 봉사하며, 황군(皇軍)의 지기(志氣)를 고무진작하여 후고(後顧)의 근심이 없이 그 본분을 다하게 할 것을 서약하기로 선언”하였다.¹⁹⁾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된 시점은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한지 2주 뒤였다. 선서에 보이듯, 연맹은 후방기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일본군의 사기를 고무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런데 군사후원연맹은 민간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주도해서 만든 “군관민 일치의 대규모의 군사후원단체”였다. 연맹의 회장은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총독부 정무총감이 맡았고, 부회장은 총독부 내무국장과 1명의 평의원이 맡았다. 평의원은 가맹단체 대표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사는 총독부 사회과장이 담당하였다. 연맹의 고문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과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조선군사령관이었고, 상담역(相談役)은 쿠노 세이이치(久納誠一) 조선군 참모장이 맡았다.²⁰⁾

연맹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일반국민에 대한 황군(皇軍)

18) 혁호, 조소문화협회중앙위원회, “조선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pp. 36-37.

19) “朝鮮軍事後援聯盟 規約, 宣言 등을 決定.”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20) “朝鮮軍事後援聯盟 卅餘加盟團體로 組織.”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 “大野總監謹話.” 『동아일보』 1937년 9월 15일.

원호의 강화철저, ② 상이군인 및 군인의 가족·유족에 대한 부조(扶助), ③ 응소(應召)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알선, ④ 응소·출동(出動)·개선(凱旋) 군인에 대한 송영(送迎) 및 접대, ⑤ 파견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⑥ 전병사상(戰病死傷)군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조위문(弔慰問), ⑦ 기타 사업이었다. 연맹은 이상의 사업과 함께 사업 실시를 위한 ‘금품의 모집’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하였다.²¹⁾

연맹의 간부 구성을 보면, 고문과 상담역은 조선총독과 조선군 장성들이 맡았고, 회장·부회장·간사는 총독부 간부들이 맡았다. 특히 연맹의 실질적인 운영은 총독부 내무국이 담당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지방에 설치된 지부와 분회의 운영도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였다. 예컨대 경성군사후원연맹의 회장은 경성부윤이 맡았고,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부 총무부 내무과에 설치되었다.²²⁾ 경성군사후원연맹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연맹의 모든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경성부의 내무과장, 사회과장, 서무과장, 위생과장, 권업과장, 영선과장, 회계과장이 주관하였다.²³⁾ 이처럼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가 조직하고 총독부 내무국과 지방행정기관이 운영한 관변단체였다.

군사후원연맹의 조직적 특징은 산하에 각종 사회단체가 가입했다는 점이다. 연맹에 가입한 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 조선본부, 제국재향군인회 용산연합지부,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해군협회, 국방의회(國防義會), 방호단(防護團),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경성연합청년단,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한성의사회, 경성약제사회, 조선교화(教化)단체연합회 등 23개 사회단체였다.²⁴⁾ 즉 군사후원연맹에는 군사원호단체, 방위단체, 종교단체, 부인·청년단체, 의료단체, 교화단체 등이 가입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후원연맹은 전국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각 도에는 지부가 설치되었고 부·군·도(府·郡·島)에는 분회(分會)가 설치되었다.

21) “朝鮮軍事援護聯盟規約.”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22) “市內七十團體結合 京城軍事後援聯盟 結成.” 『동아일보』 1937년 7월 31일.

23) “軍事後援聯盟 事務分掌規程.” 『동아일보』 1937년 8월 3일.

24) “宣言.”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1937년 7월 20일에 결성된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의 경우, 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경기도 내무부장과 한상룡(韓相龍)이 맡았다. 평의원은 경성 부윤 외 5명이 맡았다.²⁵⁾

군사후원연맹은 다양한 형태의 군사원호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을 연맹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연맹은 군사원호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한 뒤에, 이를 연맹에 가입한 각 단체에 분담시켰다. 예를 들어, 군인의 수송 원조와 환송은 재향군인회·해군협회에서, 금품 모집과 가족 위문은 애국부인회·국방부인회에서, 가족의 취업·생업 알선은 군인후원회·국방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체계를 통해 군사후원연맹은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군사원호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각 원호사업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내무과장·사회과장·권업과장 등 배치함으로써 군사후원연맹의 활동을 보조하고 통제하였다.²⁶⁾

군사원호사업은 종류별로 크게 군인에 대한 원호사업, 군인의 가족·유족에 대한 원호사업, 현금·금품 모집사업, 대중에 대한 원호사상사업, 축제·위령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원호사업은 군인의 응소·징발·징용·군사수송·입대·환송·위문·법률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이었다. 군인의 가족·유족에 대한 원호사업은 가족·유족에 대한 부조·위문·법률지원·취학원조·의료원조·취직원조·생업원조가 이루어졌다.²⁷⁾ 이 중에서 군사원호사업의 핵심은 군인과 군인의 가족·유족에 대한 원호사업과 현금·금품 모집사업이었다.

군사후원연맹의 첫 번째 주요사업은 위로금·국방현금 모금사업과 위문단이었다. 먼저 군사후원연맹은 원호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1937년 8월 총독부에 기부금모집허가원을 신청했는데, 연맹이 계획한 제1차 모금액은 30만 원이었다.²⁸⁾ 연맹의 결정에 따라 각 지부는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예컨

25) “京畿軍事後援聯盟.” 『동아일보』 1937년 7월 30일; “朝鮮軍事後援聯盟規約.”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26) “軍事後援聯盟加入團體 業務分擔表.” 『동아일보』 1937년 8월 4일; “軍事後援聯盟 事務分掌規程.” 『동아일보』 1937년 8월 3일.

27) “軍事後援聯盟加入團體 業務分擔表.” 『동아일보』 1937년 8월 4일.

대 경성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8월까지 “입영군인의 위로금”으로 29,006원을 모금하였다.²⁹⁾ 국방헌금은 국방금·위문금·홀병금(恤兵金)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1937년 7월에 조선군사령부 애국부(愛國部)에서 처음 모금을 시작했으며, 이후에 모금기관이 군사후원연맹으로 확대되었다.³⁰⁾ 또한 군사후원연맹은 1938년 11월에 ‘황군위문연예단’을 조직해서 11월 7일에 중국으로 파견하였다.³¹⁾

군사후원연맹의 두 번째 주요사업은 군인의 가족과 유족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연맹은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모금해서 ‘응소군인 및 가족·유족에 대한 부조와 위문’ 자금으로 지출하였다.³²⁾ 또한 경성부는 1937년 8월 11일부터 군사후원연맹의 부조·구조를 받는 군인의 가족들에게 당분간 수도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³³⁾ 그리고 군사후원연맹은 총독부 체신국과 제휴해서 군인의 유가족에게 특별무료건강상담을 제공하였다.³⁴⁾

Ⅲ.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과 활동

1.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조직구성

북한의 정치세력이 1949년 7월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설립한 역사적 배경에는 한반도의 단일국가 수립문제가 놓여있다. 북한은 1947년 10월 8일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최종 결렬되자 본격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18일에 헌법제정기구를 설립하고 헌법초안을 작

28) “卅萬圓程度의 寄附金 募集.” 『동아일보』 1937년 8월 1일.

29) “京城軍事應援金 三萬圓突破.” 『동아일보』, 1937년 8월 8일.

30) “逕至하는 國防獻金.” 『동아일보』 1937년 8월 17일; 『동아일보』 1937년 8월 18일.

31) “朝鮮軍事後援聯盟 皇軍慰問演藝團, 來七日兩班이 出發.” 『每日申報』 1938년 11월 5일.

32) “京城軍事聯盟 事業資金 募集.” 『동아일보』 1939년 9월 14일.

33) “入營軍人家族에 水道料 免除.” 『동아일보』 1937년 8월 12일.

34) “軍人家族에 無料健康相談.” 『동아일보』 1937년 8월 26일.

성하기로 결정했다.³⁵⁾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은 1948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1948년도의 목표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신헌법에 입각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³⁶⁾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8년 2월 8일에 ‘통일국가’의 군대로서 ‘조선인민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였다.³⁷⁾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민군의 전력(戰力)을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었다. 전력을 결정짓는 데에는 무기·장비·국방비 등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정치사상·사기 등 정신적 요소도 중요했다. 북한의 정치세력이 군인들의 정신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인민군 원호사업이었다.³⁸⁾

북한정부는 인민군을 강화하기 위해 1949년 5월 9일에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민족보위를 튼튼히 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을 원호”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정부는 전사·하사관으로 입대한 노동자와 사무원의 부양가족에게 매월 200~4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입대한 농민의 부양가족에게 농업현물세를 5~30% 내에서 감면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적용시기는 6월 1일부터였다.³⁹⁾ 이와 함께 부양가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취직이 앞선되고 국가배급도 먼저 지급되었으며, 무료치료와 주택이 보장되었다.⁴⁰⁾

북한정부가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물질적 혜택을 준 것은 가족의 생계유지에

35)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第三次 北朝鮮人民會議 會議錄』, 평양: 朝鮮人民出版社, 1948, pp. 117-120, 149-151.

36) 金日成, “一九四八년도의 신년사(1948.1.1).”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8. 5., pp. 1-4.

37)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 『중요직장 및 학교에서 실시할 조선인민군 창립 1주년 기념보고문』, 평양: 민족보위성, 1949, p. 1.

38) 북한에서 ‘원호’는 도와주며 돌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원호사업에는 물질적 혜택과 정신적 위안이 함께 포함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819.

39) 내각사무국 편찬, “朝鮮人民軍隊 戰士 및 下士官들의 扶養家族 援護에 關한 決定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1949년 1~6월), 평양: 내각사무국, 1949, pp. 39-40.

4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266.

핵심적 노동력인 청년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부양가족에 대한 물질적 혜택은 향후 미입대 청년들을 신병으로 동원할 경우에도 입대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적 자극이었다. 특히 북한정부는 소련·일본과 달리 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현물세 등의 세금에 의존했는데, 수확고의 25%를 현물로 납부해야 하는 농업현물세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⁴¹⁾ 따라서 정부는 정신적 원호나 사회혜택 제공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이라는 직접적 방식을 통해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입대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킨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군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호사업을 전담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가 바로 조국보위후원회이다. 김일성은 1949년 7월 8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⁴²⁾ 그러나 조국보위후원회는 북한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니다. 북조선직업총동맹·북조선농민동맹·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북조선민주청년동맹 등 사회단체는 1949년 7월 15일에 공동발기의 형식으로 “조국보위후원회 중앙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단체로 조직되었다.⁴³⁾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사업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되지 않았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간부에 따르면, 후원회에서 조직한 초급단체의 운영은 “직맹, 농맹, 녀맹 등 타 사회단체 사업과 밀접히 연결시키는 기초위에서” 계획분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⁴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은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남한과

41) 농민들은 현물세를 정량보다 적게 납부하기 위해 파종면적을 적게 신고하는 등 갖은 편법을 사용하였다. 김재용,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현실』 75호, 2010, pp. 285, 289-291.

42)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이하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력사과학』 21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5.

43)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49. 10., p. 29.

44) 김두순, “초급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2권 5호, 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 5. 15., pp. 40-41.

북한의 71개 정당·사회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민족통일전선체이다. 조국전선은 총 27명의 중앙상무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들 중에는 북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최경덕, 북조선농민동맹 위원장 강진건,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위원장 박정애,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위원장 현정민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⁵⁾ 그러므로 조국보위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 조국전선의 산하단체이자, 설립 당시부터 북한의 사회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1949년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됨에 따라 “각도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도 조직되었다. 각도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는 7월 17일에 강원도에서, 7월 19일에 평남·함남·함북·황해도에서, 7월 21일에 자강도에서 각각 조직되었다. 각 도와 평양시의 결성준비위원회는 각 도 직업동맹·농민동맹·청년동맹·여성동맹, 기타 사회단체 대표들의 참석 하에 조직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규약초안을 토의했고, 각 시군의 하부조직에 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⁴⁶⁾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는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군별로 조직되었다. 하부단체는 가장 먼저 평양시에 조직되었는데, 7월 22일에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평양시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을 통해 하부단체의 조직과정을 살펴보자. 결성식에는 농민동맹·여성동맹·청년동맹·항공협회 등 평양시의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평양시 민청위원장 리석항이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의 결성과정을 보고했고, 이어서 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규약초안 낭독이 진행되었으며, 박화삼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위원은 평양시의 각 사회단체 대표 11명이 임명되었다. 위원장은 평양시 민청위원장 리석항이 피선되었고, 부위원장은 북조선직업총동맹 평남도평의회 서기장 김해식이 피선되었다.⁴⁷⁾

4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상무위원회 서기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평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상무위원회, 1949. 8. 15., p. 16, 184.

46) “조국보위후원회 각도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24일.

47)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 준비위원회 결성.” 『로동신문』 1949년 7월 23일.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조국보위후원회의 생산자료나 북한자료에는 조국보위후원회나 그 하부단체가 정식으로 결성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산업성의 기관잡지 『산업』 1949년 9월호에 실린 논설에는 “지난 7월 15일 북반부의 애국적 사회단체들의 발기로서 발족한 조국보위후원회”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북한이 1981년에 펴낸 『조선전사』에도 조국보위후원회가 1949년 7월 15일에 조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1949년 7월 17일자 『로동신문』에 따르면,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는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규약 초안을 채택했으며, 하부단체의 조직준비에 대한 문제와 결성준비에 따르는 제반사업에 착수하였다.⁵⁰⁾

따라서 조국보위후원회는 별도의 결성식을 개최하지 않고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한 1949년 7월 15일을 결성일로 간주하고, 이날 강령·규약초안을 채택한 뒤에 바로 중앙위원회와 하부단체를 조직한 것이다.⁵¹⁾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도 공식적인 결성식을 개최하지 않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날에 간부를 선출하고 조직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창설 인식에 따라 하부단체는 1949년 8월 28일 당시에도 여전히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함북도준비위원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⁵²⁾ 평양시준비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도·시·군 하급단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청년동맹·직업동맹 등 사회단체의 위원장이 맡았고, 위원도 해당지역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맡았다. 결국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별도로 간부가 배치되지 않고, 각 지역의 사회단체 간부들이 후원회의 간부를 겸임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간부는 별도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48) 김용국, “人民軍隊의 強化는 祖國統一을 保障한다.” 산업성, 『산업』 1949년 9월호, 평양: 산업출판사, 1949. 9. 10., pp. 11-12.

4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81.

50)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17일.

51) 북한은 전쟁 후에도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한 1949년 7월 15일을 단체의 결성일로 간주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민족보위성 전쟁경험연구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p. 69-70.

52) “조국보위후원 사업기금으로.” 『로동신문』 1949년 8월 28일.

조국보위후원회 하부단체의 공식 명칭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명+본부”로 명명되었다. 예를 들어, 황해도에 조직된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는 “조국보위후원회 황해도본부”였고,⁵³⁾ 평안남도 강서군 하부단체의 명칭은 “조국보위후원회 강서군본부”였다.⁵⁴⁾ 평양시 하부단체의 명칭은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본부”였다.⁵⁵⁾ 조국보위후원회의 회원 자격은 만 16세 이상의 전체 공민(公民)이었다.⁵⁶⁾

후원회의 말단에 조직된 하부단체 명칭은 “초급단체”였다. 초급단체는 행정구역상 면·리 단위에 조직되었고, 각 정권기관에도 조직되었다. 또한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는 “각 직장·농촌·기업소·학교” 등에 조직되었고,⁵⁷⁾ “공장·광산·농촌·어촌·가두”에도 조직되었다.⁵⁸⁾ 가령 9월 16일 당시 평양시에는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지역전리 초급단체”가 조직되어 군무자 가족 위안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⁵⁹⁾ 10월 1일 당시 체신성에는 “조국보위후원회 체신성초급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⁶⁰⁾ 초급단체의 역할은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실행하면서 회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대중들의 동향과 실정을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대중들을 직접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것이었다.⁶¹⁾

각 직장과 지역에 설립된 조국보위후원회 하부단체는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특히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1월 18일 당시 평양화학공장에 조직된 조국보위후원회는 “민청 맹원들을 선두로 하여 비행기·탱크헌납사업”을 전개하였다.⁶²⁾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 간부와 청년후련대의 ‘후련 간

53)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p. 36.

54)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p. 29.

55) “군무자 및 그 가족 위안의 밤 성대.” 『로동신문』 1949년 12월 28일.

56) 최옥향,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p. 5.

57) “卷頭言-祖國保衛後援事業 強化를 위하여.” 『새조선』 제2권 9호, 평양: 國立人民出版社, 1949. 10. 18., p. 9.

58) 김선보, “조국보위 후원사업과 소년단원의 임무.”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년단』 3호(1949. 9), 평양: 청년생활사, 1949. 9. 1., p. 6.

59) “완전한 전투적 준비로써 인민의 적을 소탕기 위하여.” 『로동신문』 1949년 9월 16일.

60) “조국보위 후원사업에 인민의 열성 더욱 고조.” 『로동신문』 1949년 10월 1일.

61) 김두순, “초급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p. 40.

62)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 평양화학공장 문학씨클 민청위원회, 1950. 1. 18., p. 3, NARA,

부'도 주로 각 지방의 청년동맹 초급단체 위원장이 겸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겸임제도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는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청년동맹의 하부단체 간부들이 조국보위후원회 간부를 겸임함에 따라 “조국보위후원회 사업 때문에 동맹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다.⁶³⁾ 직장·지역의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이 청년동맹의 간부가 맡았다. 그 이유는 조국보위후원회의 주요활동 중 하나가 군사훈련이었고, 그 대상이 군인으로 입대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8월에 중앙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김일성은 1949년 8월 5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 강화문제를 제기하고,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중앙에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가, 각 군에는 군위원회 본부가, 면·리·공장·기업소·학교·가두에는 초급단체가 조직되었다.⁶⁴⁾

북한자료에 따르면, 결성 한 달만인 8월 말 당시 조국보위후원회의 초급단체는 25,000여 개가 조직되었고, 회원은 2,691,000명에 달했다.⁶⁵⁾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사업은 급속히 진척되지 않았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1949년 9월 13일 당시 조국보위후원회는 29개 리 중에 27개, 6개 학교 중에 2개, 25개 사무직장 중에 8개 등 전체의 51%만 조직되었고, 회원도 전체 대상자의 50%만 가입한 상태였다. 리 단위는 더욱 심각했는데, 10월 말 당시 조국보위후원회 인제군본부의 가입률은 남면 두무리가 31%, 신월리가 21%에 불과했다.⁶⁶⁾ 그러므로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는 1949년 7월부터 지방의 리를 중심으로 학교·직장으로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RG 242, SA 2012, Box 1, Item 143.

6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민청당조 제50차 회의록(1949. 12.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자료집』 4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 p. 166.

64) 최옥향,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p. 5.

6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p. 281.

66)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p. 212.

결성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구성을 보면, 기존에 조직된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한 것은 일제시기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구성과 같았으며, 초급단체를 말단의 기본조직으로 설정한 것은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와 동일했다. 또한 소련의 항공화학후원회가 회원 자격을 만 14세 이상의 공민으로 설정한데 비해, 조국보위후원회는 만 16세 이상의 공민으로 설정하였다.⁶⁷⁾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 당시에 인민군의 모병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⁶⁸⁾ 따라서 북한의 정치세력은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조국보위후원회에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뒤에 모병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조국보위후원회를 설립한 근본적인 목적은 후원회의 강령에 드러나 있다. 강령에 따르면, 조국보위후원회는 “조국보위를 적극 협조하는 전 인민의 대중적 사회단체”로 규정되었다. 후원회는 “국토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인민들이 전취한 민주건설의 성과를 보위하기 위하여 후방원호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⁶⁹⁾ 사회단체는 사회의 계급과 계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적 원칙에서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 사회단체가 정당과 다른 점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하지 않는 것이다.⁷⁰⁾

따라서 조국보위후원회는 본질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사회단체들이 군사훈련과 후방원호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대중단체였다. 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67) 북한의 노동법령은 14~16세(만 13~15세)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17세(만 16세)부터 성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조선민주청년동맹도 회원자격을 만 16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만 16세부터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조』,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평양: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1946. 6. 24.;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북조선민주청년동맹 강령규약』, 평양: 북조선민주청년동맹, 1949. 10. 15., p. 9.

68)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우계순, 1948. 7. 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

69)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p. 1.

70)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149.

근간이 된 단체는 직업동맹·농민동맹·여성동맹·청년동맹 등 계급과 계층을 기본 단위로 하는 성인들의 사회단체였다. 이처럼 조국보위후원회는 이미 조직된 북한지역의 성인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구축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1.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조선인민군대의 강화사업에 물심량면으로 후원하며 국토보위사업에 적극 협조 참가한다.
2. 조국보위를 위하여 군사지식을 습득하며 인민군대에 복무함을 고상한 영예로 한다.
3. 조선인민군대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지식과 발명으로 공헌하며 항공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저해하려는 온갖 반동분자들의 파괴음모로부터 직장 및 농촌과 국가재산을 방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⁷¹⁾

후원회의 주요업무는 인민군 강화사업, 국토보위사업, 군사훈련, 군사과학·항공과학의 습득·발명·발전, 방첩사업이었다. 이를 주제에 따라 종합하면, 인민군 원호(援護)사업, 군사교육·훈련, 조국보위사업이었다. 그러므로 조국보위후원회는 단순히 인민군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도시·농촌·직장에서 ‘반동분자’들과 투쟁하는 단체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특히 항공과학의 발전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의 활동을 참고한 것이었다. 항공화학후원회는 기존에 조직된 항공동호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비행구락부·모형기씨클’ 등을 조직해서 비행사와 낙하산병 등 공군병력을 양성했다. 북한에도 소련과 비슷하게 1945년 12월 15일에 항공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평양·함흥·청진·회령 등에 조선항공

71)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p. 1.

협회가 결성된 바 있다.⁷²⁾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소련의 모델을 도입해서 조선 항공협회를 기초로 조국보위후원회를 활용해 공군병력을 양성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소련의 화학방위산업동호회와 같은 화학 관련 사회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국보위후원회의 사업에서 화학분야는 제외되었다.

북한지도부는 1949년 7월에 조국보위후원회가 조직되자, 각종 언론을 통해 후원회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당은 1949년 8월 23일자 『로동신문』에 “해방4주년 기념표어”를 게재하였다. 기념표어는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인민군대 경비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라. 모두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과 그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라” 등 모두 조국보위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⁷³⁾

또한 내각의 각 성과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 소속원들에게 조국보위후원사업에 적극 참가하라고 지시하였다. 산업성은 기관잡지 『산업』 1949년 9월호에 게재한 논설에서 ‘조국보위과업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과업이며 인민들의 인민군대·경비대·보안대들을 백방으로 원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⁷⁴⁾ 북조선직업총동맹도 기관지 『로동자』 1950년 2월호의 권두언에서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선언하였다.⁷⁵⁾

그러나 조국보위후원사업은 비단 성인 사회단체만 참가하는 활동이 아니었다. 조선소년단은 1949년 9월에 발행된 기관지 『소년단』에서 소년단의 임무를 명시하였다. 그 임무는 ‘인민군대 및 경비대·보안대 아저씨들의 가정을 단 또는 분단별로 원호하며 그들에게 위안품과 위안문을 많이 보낼 것, 학교에서 교과목 학습과 함께 군사유희 또는 그라이다 띄우기를 계속하며 몸을 다지고 기술을 습득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민청형님들을 따라

7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p. 131;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p. 584.

73) “표어.” 『로동신문』 1949년 8월 23일.

74) 김용국, “人民軍隊의 強化는 祖國統一을 保障한다.” 『산업』 1949년 9월호, pp. 11-12.

75) “인민군대강화를 위한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다하자.”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로동자』 1950년 2호, 평양: 로동자신문사, 1950. 2. 20., p. 3.

조국보위후원사업에 있는 힘을 다 바치자”라고 호소하였다.⁷⁶⁾

2. 조국보위후원회의 간부와 활동

현재까지 조국보위후원회의 간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국보위후원회의 회장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하부단체의 간부를 맡은 것이 북한의 사회단체였으므로 회장도 사회단체 위원장 중 한명이 겸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획문서에 따르면,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부위원장”은 문종목(文宗穆)이었다. 그는 중앙본부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 1950년 신년호에 「새해를 맞이하는 조국보위후원회 각급단체들의 과업」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였다.⁷⁷⁾

문종목은 중국 광둥군사정치학교(廣東軍事政治學校)를 졸업하고 중국국민당 군대에서 헌병대 정치부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인물이다. 그는 1931년에 전중국소비에트대회에 조선대표로 참석할 만큼 저명한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1946년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경비부장관과 철도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으며, 1946년 8월부터 1948년까지 보안간부훈련대대 부·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조선인민군총사령부에서 줄곧 대열부장으로 활동했다. 문종목은 정치활동과 군사경험이 풍부했으며, 인민군의 창설을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었다. 따라서 인민군 원호사업과 주민들의 정치·군사부문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조국보위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⁷⁸⁾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구성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는 “훈련부”가 설치되었다. 훈련부는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의 방

76) 김선보, “조국보위 후원사업과 소년단원의 입무.”, p. 6.

77) 문종목, “새해를 맞이하는 조국보위후원회 각급단체들의 과업.”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1호(신년호), 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 1. 10., pp. 19-20.

78) 군사와 관련된 부문에서 정치사상사업과 전투교육·훈련의 책임간부는 주로 정치교육과 전투경험이 많은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출신이 맡았고, 작전·후방·정찰·공병군의 등 전문기술병종의 책임간부는 소련군체계에 익숙한 고려인들이 맡았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p. 306, 360, 440, 491.

법과 집행을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훈련부 부부장”은 김병연이었다. 또한 중앙본부에는 조직부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보위를위하여』 1950년 5월호에는 김두순이 쓴 「초급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각급 초급단체의 사업을 평가하고, 초급단체 지도일꾼들에게 하부지도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지시한 글이다. 이 글을 쓴 김두순은 조직부장이나 조직부 부부장으로 추정된다.⁷⁹⁾

또한 조국보위후원회는 기관지를 편집·발행하는 “조국보위를위하여사(社)”를 설립하였다. 조국보위를위하여사 사장은 라형순이었고,⁸⁰⁾ 편집부 부부장은 김지원이었다. 김지원은 1920년생으로, 1935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차화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전문부 경제과에 입학했다. 그는 1941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1942년 1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중국 통화시 문화인쇄회사에서 경리과장과 업무과장으로 근무했다. 김지원은 1946년 10월부터 1949년 8월까지 북조선인민항공협회에서 교육부원, 기관지 주필, 교육부장으로 근무했으며, 1949년 8월에 조국보위를위하여사 편집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⁸¹⁾ 다른 간부들의 경력은 알 수 없다.

조국보위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인민군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원호사업은 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세분화되어 각 계급과 계층별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애국노동의 형태로, 농민들은 인민군대 가족들에 대한 농사협조의 형태로, 기업가와 상인들은 조국보위후원회 기금회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체 주민과 학생들은 군인들에게 선물·위안문·격려문을 보내고, 지역별로 군인 가족들을 초대해서 위안회와 오락회를 개최하였다.⁸²⁾

79)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p. 36.

80) 느·즈루아르지 저, 신일균 역, 『불멸의 이름』, 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사, 1949. 11. 30.

81)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당간부부, “간부리력서(김지원, 1950.4.15).” 『간부리력서』,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1949, 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16.2.

82) 김인환,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조국보위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조쏘친선』 1949년 11월호, 평양: 文化出版社, 1949. 11. 10., p. 11.

각 계급과 계층별로 진행한 원호사업은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에서 취합해 군대에 전달하거나 중앙본부에 종합되었다. 가령 함경북도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에 하부단체를 통해 모은 선물 수십만 점과 위문편지 3,000여 통을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대원들에게 보냈다. 청진시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에 기업가 강제석이 회사한 후원금 50만 원 등 ‘애국적 기업가상인들’이 보낸 100여 만 원의 금품을 중앙본부에 발송하였다.⁸³⁾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은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와 조선군사후원연맹에서 모두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두 단체는 모두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활동과 유가족에 대한 부조·의료지원 등 원호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원호사업의 대상에 유가족과 함께 가족을 포함시켰다. 북한은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했으나, 소련·일본과 달리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대폭 감면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의 두 번째 주요사업은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과학 지식·기술 보급사업이었다. 후원회는 군사사업을 위해 중앙본부에 훈련부를 설치하였다. 훈련부는 기관지 『조국보위를위하여』를 통해 소련의 군사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군사훈련 방법을 지도하였다. 기관지에는 ‘군사과학지식’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원고가 매호마다 정기적으로 게재되었다.⁸⁴⁾ 또한 조국보위후원회는 청년회원들에게 군사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군사기술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 의해 후원회의 하부단체에 지역과 직장 실정에 따라 ‘항공, 포, 탱크, 해양, 자동차 등에 관한 각종 연구씨클’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청년회원들에게 군사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하부단체에 “기술연구지도원”이 배치되었다.⁸⁵⁾

83)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p. 41.

84)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pp. 2-4;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목차, p. 19.

85) “사실: 군사기술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위하여』 제2권 5호,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 보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련국 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의 사업을 모델로 한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소련과 비슷하게 회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지식·기술과 관련된 각종 연구 씨름을 만들어서 교육했지만, 소련과 달리 화학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에 화학 관련 사회단체가 없었고, 화학전에 대비할 기술과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세 번째 주요사업은 무기 구입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헌납 운동이었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1949년 10월 12일에 처음으로 비행기와 탱크를 국가에 헌납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기금헌납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⁶⁾ 그리고 중앙본부는 기금헌납운동을 한 달 정도 전개한 11월 22일에 비행기·탱크와 함께 함선도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⁷⁾ 기금의 정식명칭은 “비행기와 탱크 건조기금”이었다.⁸⁸⁾

기금헌납운동은 노동자들에게는 “애국로동운동”의 형태로, 농민들에게는 “애국미헌납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계획 초과로 받은 상금과 각종 애국노동으로 얻은 보수를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으로 헌납하였다. 대표적으로 흥남비료공장 노동자들은 1949년에 235만 원을, 철산광산 노동자들은 100만 원을 헌납하였다.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 중에 일부를 비행기·탱크·함선을 구입하기 위한 “애국미”로 헌납하였다. 예를 들어, 황해도 신천군의 한 농민은 벼 200가마니를, 재령군의 한 농민은 벼 130가마니를 헌납하였다.⁸⁹⁾ 조국보위후원회가 1949년 10월부터 기금헌납운동을 전개한 결과, 1949년 12월 말까지 2억 8천 원의 현금과 48,000여 가마니의 양곡이 국가에 헌납되었다.⁹⁰⁾

pp. 1-2.

86)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조국보위 위한 인민들의 애국 열성, 인민군대에 비행기와 탱크를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0월 13일.

87) “함선도 헌납기로 결정.” 『로동신문』 1949년 11월 23일.

88) “비행기와 탱크건조기금 회사.” 『로동신문』 1949년 10월 18일.

8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pp. 283-284.

90)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회사.” 『로동신문』 1950년 1월 5일.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 국가에 무기를 헌납하는 군사원호활동은 이미 해방 전에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먼저 소련은 1930년대에 국방항공 화학건설후원회를 통해서 비행기 구입용 기금을 모금했다. 후원회는 기금을 모아서 소련 육군에 300대가 넘는 비행기를 헌납했다.⁹¹⁾ 또한 항공화학후원회는 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국방기금”도 모금했다. 특히 후원회는 1930년 11월에 전국적으로 “국방데이 캠페인(campaign)”을 실시해서 10일 만에 국방기금 500만 루블을 모금했다.⁹²⁾

일본도 해방 전에 조선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위문금과 비행기 제작용 국방헌금을 모금했다. 제국재향군인회와 제국군인후원회는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 국방헌금 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포천군 재향군인회의 경우, 1933년 3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회원마다 매달 5원의 국방헌금을 모금하고 지방유지들에게 헌금납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⁹³⁾ 제국군인후원회 강원도부회(部會)는 1932년 9월 18일에 만주사변 1주년을 맞이해 재만(在滿) 군인과 국경경비 경찰관에 대한 위문금 모집 강연회를 개최해서 위문금을 모아 관동군·조선부대·국경경비부대에 헌납하였다.⁹⁴⁾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조선인 기업가와 지방단체를 동원해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기 헌납운동은 1932년 5월에 조선호(朝鮮號)가 헌납되면서 시작되었고,⁹⁵⁾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군용비행기 전복호헌납기성회’는 도민들로부터 국방헌금을 모아 1937년 10월에 전북호(全北號)라는 이름으로 비행기 3대를 헌납하였다. 또한 ‘부산애국기헌납기성회’는 1938년 8월에 부산호(釜山號)를 헌납하였다.⁹⁶⁾ 그리고 조

91) “五個年計劃과 軍需工業의 發達(二)-露西亞篇.” 『동아일보』 1934년 2월 20일.

92) “躍進하는 赤衛軍.” 『동아일보』 1933년 11월 9일.

93) “每月各人五錢式 國防獻金據出 在鄉軍人會에서 率先施行 抱川國防義會組織.” 『매일신보』 1933년 3월 25일.

94) “警官에 慰問金 演藝會益金으로.” 『每日申報』 1932년 12월 14일.

95) “朝鮮號命名式 十五日에 舉行.” 『동아일보』 1932년 5월 13일.

96) “全羅北道號 陸軍機 命名式.” 『동아일보』 1937년 10월 28일; “慶南海軍報國機 命名式 盛大 舉行.” 『동아일보』 1938년 8월 9일.

선충독부는 1935년 1월 8일에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를 창립해서 1937년 10월 21일까지 75,000원을 모금했으며, 이 헌금으로 비행기 2대를 헌납하였다.⁹⁷⁾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1937년 8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조선에서 모금된 헌금액은 8,206,938원에 달했으며, 비행기 65대(육군기 37대, 해군기 28대)가 헌납되었다.⁹⁸⁾

따라서 조국보위후원회가 추진한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운동’은 해방 전에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된 국방기금·국방헌금·애국기 헌납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추진한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헌납운동의 체계와 방식을 도입했지만, 헌납의 대상을 비행기에서 탱크와 함선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헌납의 방법도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노동’과 ‘애국미’로 확대해서 헌납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자체적으로 다양화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IV. 맺음말

북한지도부가 1949년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를 결성한 이유는 1948년 9월에 무력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겠다고 천명한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실현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⁹⁹⁾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민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행기·탱크·함선을 구입하고, 군인들을 전투력 강화에 집중시키며, 모병대상자들을 일상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북한정부는 군사원호사업을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했던 군사원호 정책을 참고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설립하고 활동했으며,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

97) “飛行機獻納會八日發會式を舉行.” 『朝鮮新聞』 1935년 1월 8일; “二機獻納을 最後로 朝飛機獻納會 解散.” 『동아일보』 1937년 10월 23일.

98) “獻金 八百廿萬圓 飛行機 六十五臺.” 『동아일보』 1939년 2월 9일.

99) 金日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발표-1948년 9월 10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pp. 257-264.

원회를 모델로 초급단체를 기본조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각은 항공화학 후원회의 회원 연령을 참고하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조국보위후원회에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뒤에 모병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정부는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한 반면,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헌납운동의 체계와 방식을 도입하면서 헌납의 대상을 비행기에서 탱크와 함선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헌납의 방법도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노동’과 ‘애국미’로 확대함으로써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북한의 정치세력이 사회단체를 조직하면서 소련의 소년단(피오네르: Pioneer)나 공산주의청년동맹(콤소몰)과 같은 사회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¹⁰⁰⁾ 그러나 일제가 조직한 사회단체를 모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들이 소련뿐만 아니라 일제의 군사원호사업을 함께 참고한 이유는 이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¹⁰¹⁾ 북한지도부는 국토완정론에 따라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 국민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까지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원호활동이 인민군의 전력 증강과 6·25전쟁 수행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1949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비행기·탱크·함선 건조 기금으로 약 2억 8,000만 원과 약 4만 6천 가마니의 애국미를 기부하였다. 그

100) 김옥자, “정치사회화과정으로서 조선소년단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봉석, “조선소년단의 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민화’ 과정.” 『역사문제연구』 24호, 2010;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곽재원,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101) 총력전은 국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을 뜻한다.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p. 776.

리고 1950년 2월까지 약 3억 원과 약 5만 가마니의 애국미를 헌납하였다.¹⁰²⁾ 또한 평양의 조선통상 사장 리철하는 1949년 10월 31일에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군용 비행기 1대를 헌납하는 수속을 마쳤다. 조흥공사 대표 김락천과 선일공업사 사장 김선 등 평양시 기업가와 상인들은 11월 4일에 비행기 17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조국보위후원회에 헌납 수속을 완료하였다.¹⁰³⁾

그러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조국보위후원회가 모금한 건조기금을 통해서 실제로 비행기·탱크·함선이 구입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보위후원회의 헌납운동은 인민군의 물질적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가 진행한 인민군 원호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은 인민군의 정신적 전력을 강화하고 신병을 충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은 조국보위후원회가 전쟁 전에 구축해놓은 동원체제 덕분에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국보위후원회는 전쟁 당시에 군사원호활동을 넘어서 후방 경비와 간호원·위생원 양성 등 인민군의 후비대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국보위복권사업을 통해 군비 확장에 기여하였다.¹⁰⁴⁾

102)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二주년에 제하여』, 평양: 문화선전성, 1950, p. 18; 김일수,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 가족 원호사업의 강화는 조선인민군의 무장력을 부단히 양성, 강화시킨다.” 『인민』 1950년 2월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p. 740.

103) “조선통상사장 리철하씨 비행기 1대를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1월 2일; “평양시 애국적 기업가상인 비행기 17대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1월 6일.

104)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pp. 224-236.

참고문헌

- 김선호, 『조선인민군 :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 金日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8. 5.
- 김인환,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조국보위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조쏘친선』 1949년 11월호, 평양: 文化出版社, 1949. 11. 10.
- 김재용,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현실』 75호, 2010.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47·3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8·2003.
-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 내각사무국 편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1949년 1~6월), 평양: 내각사무국, 1949. 『동아일보』, 『로동신문』, 『每日申報』, 『朝鮮新聞』.
-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 평양화학공장 문학씨클 민청위원회, 1950. 1. 18, NARA, RG 242, SA 2012, Box 1, Item 143.
-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軍史』 109호, 2018.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 『중요직장 및 학교에서 실시할 조선인민군 창립 1주년 기념 보고문』, 평양: 민족보위성, 1949.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서울: 나남, 1996.
-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당간부부, 『간부리력서』,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1949, 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16.2.
-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평양: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1946. 6. 24.
-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북조선민주청년동맹 강령·규약』, 평양: 북조선민주청년동맹, 1949. 10. 15.
-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第三次 北朝鮮人民會議 會議錄』, 평양: 朝鮮人民出版社, 1948.
-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로동자』 1950년 2호, 평양: 로동자신문사, 1950. 2. 20.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민족보위성 전쟁경험연구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산업성, 『산업』 1949년 9월호, 평양: 산업출판사, 1949. 9. 10.
-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關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
- 『새조선』 제2권 9호, 평양: 國立人民出版社, 1949. 10. 18.
-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제2권 1호(신년호), 제2권 5호, 평양: 조

- 국보위를위하여社, 1949. 10., 1950. 1. 10., 1950. 5. 15.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상무위원회 서기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평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상무위원회, 1949. 8. 15.
-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년단』 3호(1949.9), 평양: 청년생활사, 1949. 9. 1.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역사과학』 21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혁호, 조쏘문화협회중앙위원회, “쏘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조쏘친선』 1949년 10월호, 평양: 文化出版社, 1949. 10. 10.

Abstract

The Origi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before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oviet and Japanese Military Support Policies -

Seon-ho Kim (MND,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North Korean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PSA) was established to provide mental and material support to North Korean Army and their families, military training for members, and purchase costs for fighters, tanks, and vessel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viewed the military assistance policy in the past in the past in the USSR and Japan while planning such a military support policy. The PS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ocial groups by imitating Japanese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was planning to cultivate air force aviators and paratroopers by imitating Soviet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PSA supported the military support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Japan to support the soldiers' peace of mind. North Korea, like the Soviet Union and Japan, provided condolences to soldiers, but paid national subsidies to military families and greatly reduced direct taxes. In addition, military training promoted by the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of the Soviet Union was introduced to members as new recruits of the military.

Finally, the PSA raised money to purchase fighters, tanks, and vessels by imitating the Soviet and Japanese weapons purchase campaign. Unlike the Soviet Union and Japa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id not limit the payment method to cash, but expanded it to labor and grain to diversify the classes involved in the payment movement.

Keywords: Defense, Aviation and Chemical Support Association of the Soviet Union, Joseon Army Support Federation, North Korean Democratic Youth League, Patriotic Rice Payment Campaign, Fund to Purchase Fighters, Tanks and Vessels

투고일: 2020년 11월 06일, 심사일: 2020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5일